



Q&A

Q1 | 저는 54세의 남자입니다. 결핵 소견으로 3개월 동안 약을 먹고 있었는데, 객담검사서 비정형소견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참고로 30년 전에 마산결핵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요양을 하면서 치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1 | 내용으로 봐서 비결핵 항산균에 의한 폐질환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균종은 결핵균과 미생물학적인 특성이 유사하며 폐질환을 일으킨 경우 진단 기준에 의해 치료가 결정되면 균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약제로 치료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격리나 입원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Q2 | 작년에 자기면역질환 스틸씨병을 진단 받은 여고생인데요, 5월에 학교 검진에서 결핵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틸씨병의 별다른

증상 없이 지냈는데 결핵진단 받을 즈음 양발이 많이 부었고요, 스테로이드인 소론도정을 먹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결핵약과 함께 먹으면 결핵이 잘 낫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피라지나마이드를 빼고 먹고 약을 7개월 복용하자고 해서 2달분 먹기 시작했는데 혹시 결핵이 잘 낫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피라지나마이드가 부작용으로 관절증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빼고 먹어도 되나요?

A2 | 스테로이드는 면역억제작용이 있어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스테로이드 복용이 필요한 동반질환을 치료하거나 기관지 결핵, 임파선 결핵 등의 치료를 위해 항결핵제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라지나마이드가 치료약에 포함되는 것이 좋지만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로도 치료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처방대로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Q3 | 6월 25일 폐결핵 판정을 받아 6월 27일부터 결핵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46개월 된 아이와 남편은 보건소에서 각각 결핵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정상으로 나왔지만 아이가 2주정도 기침이 잦습니다. 주로 기침은 밤에만 하고 한 1주일 전부터 기침이 심해졌고, 소아과에서 감기약을 먹고는 있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혹시 결핵이 아닐까요?

A3 | 2주 이상 약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전염성이 없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전의 전염 가능했던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기침의 원인은 감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침이 지속되면 다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약은 소아에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필요시 감기약을 병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안전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합니다.

Q4 | 동네의원에서 결핵으로 보인다는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에 예약을 한 상태인데 아직 일주일만 남아서 검사는 못 받았습니다. 치료도 시작 안했는데, 만약 결핵이라면 부모님께 전염 가능성이 있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은 전혀 증상 없으시고, 얼마 전 갖 태어난 손주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저는 가지 않

았지만 어머니 아버지께서 결핵을 옮기실 가능성이 있나요?

A4 | 질문하신 분이 결핵이 맞다면 먼저 부모님도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결핵 환자와 접촉한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한 환자의 균 배출량이 많을 수록, 접촉 기간이 길수록 감염될 가능성은 높아지며 감염이 되더라도 그중 10% 정도만 발병합니다. 발병하지 않은 잠복결핵감염 환자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폐결핵이 아니라면 전염성이 없고 내용으로 봐서 부모님을 통해서 위에 언급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5 | 폐결핵진단을 받고 피검사와 객담검사를 했는데요, 폐결핵이 에이즈와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5 | 에이즈 등 면역 억제 환자들이 폐결핵이 잘 걸리기 쉽다는 내용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결핵이 에이즈 환자에만 생기는 병은 아니며 결핵균이 감염된 경우에 기존의 선행 질환이 없더라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단 에이즈 발생의 위험인자가 있다면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